신약 교회의 소명

신학박사 조 덕운

[베드로전서 2:9 흠정역]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이스라엘의 소명과 신약 교회

베드로께서 신약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교회의 소명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 [출애굽기 19:5-6]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
> [신명기 7:6]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러한 훌륭한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명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하늘에서 오신 메시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동일한 소명을 신약 교회에 주셨는데, 그 선언을 사도 베드로께서 이 서신에 명백히 쓰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하나님 백성과 제사장의 직분

"선정된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얘기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주 예수님의 놀라운 빛 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정된", 또는 "선택된" 세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되도록 선택된 것과 같이, 우리도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안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왕가 [Royal Family]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에 참예하는 특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제사장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레위 족속에 한정되어 부여되었고, 다른 족속은 왕일지라도 그 직분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임의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언자 사무엘에게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삼상 13 장].

제사장들과 레위 성전 책무자들은 모두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대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각자 맡은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왕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Priest]이 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High Priest]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시에 의거하여 각자 맡은 사역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달리, 신약 교회는 이 성스런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고 지난 2 천년동안 온 세계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제사장의 직분을 그 백성된 그리스도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지도아래 수행하도록 "새로운 언약"이 선포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오직 사도들만 제사장이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오직 사제들만 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하며, 교황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교회 체제를 그렇게 유지해온 것은 하나님의 왕국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 시대처럼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자신을 산 희생물로서 제단위에 바치는 일을 충실히 합니다 [롬 12:1-2]. 우리는 또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희생을 바치며 [히 13:15], 남을 위해 하는 선행을 또한 희생으로서 바칩니다 [히 13:16].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납하는 것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바치는 희생이 됩니다 [빌 4:10-20].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도와 선교 활동으로 구원 받게 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로서 바치는 특권이 있습니다 [롬 15:16]. 이러한 희생물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 만족을 위하여 바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를 바쳐도 단지 종으로서, 한 제사장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바치기 원합니다.

3. 거룩함의 회복

또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대세에 따라 세속적 문화를 예배에 도입하고, LBGT 를 용납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성직자로 임명도 하는 일도 그리 흔치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정의는 우리가 세상과 성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사람들이 하는 풍습대로 따라 간다면 어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특별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사역,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도의 일상, 거룩한 선교, 거룩한 선행, 거룩한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특별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에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 단장된, "준비된" 신부로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 19: 7-9].

이 모든 직분의 목적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주신 분에 대한 찬양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께서는 설파합니다. 하나님 찬양은 시끄러운 CCM 음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선택된 세대, 왕과 같은 고결함을 갖춘 제사장의 직분 수행, 거룩한 교회와 가정, 그리고 특별히 아름다움을 지닌 고결한 백성됨을 세상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적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항상 풍성히 주시는 그 분의 축복과 지도하심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